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 (I)

Attitudes of Urban Homemakers Toward Household Work (I)

江原大學校 家政教育科

專任講師 金 外 淑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Oi-Sook Kim

<目 次>

I. 序 論

1. 研究目的
2. 理論의 背景과 先行研究
3. 研究內容

II. 研究方法

1. 調査道具

2. 資料蒐集 및 分析

3.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III. 研究結果 및 解釋

IV. 結 論

<引用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ttitude of urban homemakers toward household work.

The data in this study are obtained from a survey by means of a questionnaire to 174 homemakers in Chuncheon. Frequency, percent, F-test and t-test were appli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1) Respondents expressed slightly favorable attitudes toward household work and attitudes varied among the work activities.

2) The variables affecting the attitude were the age, educational level of homemakers, and the family structure.

I. 序 論

1. 研究目的

家族이 家族으로서의 機能을 可能하게 하는 家事勞動은 수세기에 걸쳐 그 形態와 內容에 있어서는 變化가 있었지만, 社會的 秩序가 제 機能을 다 하도록 하는데 重要한 貢獻을 계속해 오고 있다.¹⁾

家事勞動에 관한 研究는 家政學의 發生以後 卞

준히 계속되고 있으나 主로 時間과 에너지에 관련된 研究가 많았으며, 態度와 관련된 研究는 1960年代以後 많은 文獻을 찾을 수 있고, 最近에는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가 重視되면서 家事勞動이 단순한 消費行爲가 아닌 生産行爲란 측면에서 이에 대한 金錢的 評價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遂行에 따른 產出로서 나타나지만 同時에 投入으로 作用하여 다음의 遂行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친다. 즉, 作業者投入의 情緒의 要素인 態度는 일을 맡는데 대한 情熱과

動機賦與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頻度나 철저함, 기대하는 遂行水準 등의 일에 대한 基準에 影響을 미치고,²⁾ 일을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며, 家事勞動에 대한 時間使用과 疲勞에 影響을 미친다.³⁾ 이러한 直接的 影響外에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家庭生活의 다른 영역에까지 침투되며, 家事勞動에 대한 感情이 生活滿足의 한 要素가 되기도 한다.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作業者가 家事勞動에 대하여 갖는 態度는 家事勞動의 能率化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個人 및 家族의 福祉라는 측면에서도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社會의 變化에 따라 男女의 役割에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事實이고, 男女가 共同으로 家事勞動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한다는 主張이 많기는 하지만, 1970年代以後의 調查研究結果 實際에 있어서는 家庭 밖에서 女性의 役割이 많이 變化했음에도 불구하고 家事勞動의 責任은 여전히 女性이 맡고 있음이 밝혀졌다.^{5,19)}

따라서 家事勞動의 대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責任을 맡고 있는 主婦들이 家事勞動에 대하여 어떠한 態度를 가지고 있으며,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및 어떠한 일이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으로 받아들여지는 理由가 무엇인가를 說明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観点에서 本研究에서는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의 研究中 一次的으로 主婦가 家事勞動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程度를 測定하고 7種類의 人口·社會學的 變因을 選定하여 各變因에 따른 態度의 差異를 밝히고자 한다.

2.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家事勞動이란 家族이 家庭生活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勞動⁶⁾ 즉, 家族의 機能을 可能하게 하는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기 위하여 個別家庭에서 遂行되는 意圖的인 活動을 말하며,⁷⁾ 態度는 어떤 對象에 대해 一慣性있게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으로 反應하는 學習된 傾向을 뜻하는 것으로⁸⁾ 家事勞動에 대하여 가지는 비교적 지속적인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인 心的 傾向이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라 할 수 있다.

家事勞動은 多様な 活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포함시키는 活動은 學者에 따라 상당한 差異가 있다.

특히 子女養育을 家事勞動의 一部로 볼 것인가의 與否에 대하여 家庭管理學者들과 家族學者들⁹⁾ 사이에 異見이 있으나 Glazer-Malbin은 子女養育을 家事勞動과 別個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役割分類方法이 理論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믿지는 않는다고 評한 바 있다.¹⁰⁾

本研究에서는 子女養育을 家事勞動의 一部로 보는 家庭管理學者들의 文獻을 中心으로 家事勞動에 포함되는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Nickell 등은 家事勞動의 內容으로 食자준비와 설거지, 가족원에 대한 신체적 돌보기, 주택손질, 세탁, 기타 의류손질, 장보기와 기록을 포함시키고 있고,¹¹⁾ Deacon 등은 食자준비와 설거지, 주택손질 및 청소, 심부름, 장보기, 자녀양육, 성인 돌보기, 정원손질 및 동물 돌보기, 이상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출을 포함시켰으며,¹²⁾ Walker 등은 家事勞動의 內容을 食자준비, 주택손질, 가족 돌보기, 옷손질, 장보기 및 관리의 5개 集團領域으로 分類하고 個別的인 活動으로서 일상적 食자준비, 특별 食자준비, 설거지, 일상적 주택손질, 특별 주택손질, 정원손질과 자동차손질, 신체적 가족 돌보기,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 세탁, 다림질, 특별 의류손질, 장보기, 관리, 기록 등 15개 活動을 포함시켜 研究하였다.¹³⁾ 또한 山本キク는 家事를 管理的인 것과 技術的인 것, 單純한 筋肉勞動으로 分類하였고,¹⁴⁾ 李仁喜는 食事に 관한 일(食生活), 被服에 관한 일(衣生活), 住居에 관한 일(住生活), 育兒·어린이 教育에 관한 일, 交際에 관한 일, 看護衛生에 관한 일, 金錢出納 등 經濟整理에 관한 일, 生産에 관한 일(家庭菜園·飼育), 家族의 慰安에 관한 일, 기타 偶發的 사건에 관한 일 등 10種의 項目으로 分類하면서 家庭勞動의 內容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는 困難하고 더우기 이것을 分類·組織하여 系統化하기는 一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¹⁵⁾

한편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에는 家事勞動全般에 대한 感情, 個個의 家事勞動內容에 대한 感情 및 家事勞動의 遂行基準에 대한 感情이 포함된다.¹⁶⁾

以下에서는 先行研究를 中心으로 먼저 韓國家庭에 있어서 家事勞動과 관련된 問題點을 살펴본 후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를 考察하기로 한다.

尹福子の 研究에 의하면 우리나라 主婦들의 家事勞動時間은 外國에 비해 많으며,¹⁷⁾ 南明姬는 主婦의 家事勞動 過重要因으로 부엌 施設의 미비, 作業方法의 非能率性, 生活時間 活用の 無計劃性, 家族들의 非協力, 主婦 自身の 劣等意識 등을 지적하였다.¹⁸⁾

家族들의 非協力問題는 家事가 거의 主婦에게 맡겨져 있고, 男便, 子女 등 家族員의 分擔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는 家事分擔에 관한 研究結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⁹⁾

한편 張明郁의 두 研究에 의하면 우리나라 主婦들의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意識과 家庭管理行動 사이의 심한 不一致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意識에 관한 研究結果에서는 都市, 農村의 主婦들 85%以上이 家事勞動은 主婦가 해야 한다고 應答하여 家事勞動에 대한 높은 價値意識을 나타내었으나,²⁰⁾ 家庭管理行動에 관한 研究結果에서는 作業의 管理行動이 否定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家事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實踐的이고 行動的인 作業의 管理行動이 否定的으로 나타난 것은 家庭管理에 많은 影響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으며,²¹⁾ 또한 都市主婦는 家事勞動을 되도록 쉽게 하고 싶어하는 傾向이 全體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計劃的이고 科學的인 生活意識이 미약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主婦들의 家事處理에 있어서 모순된 두개의 價値意識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²⁰⁾

高道任은 都市主婦의 家庭管理에 대한 態度研究에서 主婦들의 평상시 살림을 하는 態度가 경험을 토대로 궁리해서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學校에서 배운 科學的 知識이나 合理的인 理論은 거의 活用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²²⁾ 杜智均은 新婦主婦를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 新婦主婦들의 家事處理에 대한 意識이 理論보다 經驗이나 關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습관적 또는 피동적으로 처리하려는 傾向이 농후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²³⁾ 또한 朴仁德은 女大生의 家事能力

에 관한 研究에서 女大生들의 家事勞動에 대한 關心度에 비하여 參與度가 대단히 낮은 사실을 밝혔다.²⁴⁾

以上の 研究들을 綜合해 볼 때 우리나라 家庭의 家事勞動에 관련하여 많은 問題點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李朝時代 女性의 職責은 家庭에서 育兒, 針線, 紡績, 洗濯, 炊事와 奉祭祀하는 것이지 文壇의 재주는 할 바가 아니라고 하여²⁵⁾ 家事勞動만이 女性의 職責으로 규정되었으며, 1970年代以後의 張明郁의 研究에서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意識이 대단히 농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라든가,²⁰⁾ 崔信德의 研究에서도 家事에 있어서 主婦의 役割構造에는 그다지 많은 變化가 일어난 것 같지 않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²⁶⁾ 女性의 社會進出이 활발한 現代에 있어서도 家事勞動은 여전히 女性의 責任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家事勞動의 全部 또는 大部分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있는 主婦들이 그들의 位置에 얼마나 滿足하고 있는지를 文淑才의 研究를 통하여 살펴보면, 應答者의 31.8%가 아주 만족하다, 57.1%가 그저 그렇다, 8.8%가 아주 만족하지 않다고 답하여 9% 정도만이 심한 不滿을 表現하였고,²⁷⁾ 대부분의 主婦들은 보통 이상의 滿足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西區의 경우, 一般的으로 오늘날의 女性은 家事勞動에 대하여 不滿足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美國 및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調查研究에 의하면 女性들은 男性들이 職務에 滿足하는 것만큼 家事勞動에 滿足하고 있으며, 1~10%의 主婦들만이 家事勞動을 싫어한다고 밝혀졌다.²⁸⁾

그런데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社會經濟의 地位에 따라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데, Van Bortel 등의 研究에서는 더 높은 地位를 가진 主婦들이 家事勞動에 대하여 더욱 好意的인 態度를 보이나 主婦의 役割에 대해서는 약간 不滿足하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²⁹⁾ Lopata의 研究에서는 家事勞動을 싫어하는 傾向이 더 높은 階層과 더 많은 教育을 받은 女性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發見되었다.³⁰⁾

한편 어떠한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로써 家事勞動 全般에 대한 滿足感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個個의 活動에 대한 反應은 매우 多樣하다. 家事勞動內容別로 이에 대한 態度를 調査한 先行研究를 살펴보면 식사와 관련된 일, 자녀 양육, 가족 돌보기 등이 좋아하는 일로서 자주 보고되었고, 싫어하는 일로서는 설거지, 다림질, 세탁등이 많이 지적되었다.³¹⁾

단순히 어떠한 일이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으로 받아 들여지는가에 대한 知識보다는 그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理由를 아는 것이 作業者 投入의 理解에 더 많은 情報를 제공한다. 主婦들이 家事勞動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理由를 糾명한 先行研究들을 살펴보면 그 理由가 多樣하고 研究結果마다 얼마간의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으나 좋아하는 理由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든가 ‘다른 가족원으로부터의 감사’ 또는 ‘창의적’이라는 점이, 싫어하는 理由로는 ‘단조로움’ ‘지루함’ ‘비창의적’이란 점이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³²⁾ 또한 Steidle의 研究結果 家事勞動을 遂行할 때 使用된 認知的 要素와 그 일에 대한 感情과의 關係에서 注意力, 判斷力 및 計劃性이 많이 要求된다고 느끼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³³⁾

3. 研究 內容

本研究에서는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中 家事勞動全般에 대한 感情 및 個個의 家事勞動內容에 대한 感情을 알아보기 위하여, 家事勞動의 內容은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를 研究한 Walker 등의 先行研究를 基礎로 하여 分類하되 調査對象地域의 실정에 맞추어 자동차손질을 제외하고, Walker 등이 기계에 의한 세탁만을 ‘세탁’으로 규정 한데 비하여 本研究에서는 손빨래도 ‘세탁’에 포함시키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일상적 식사준비, 특별 음식준비, 설거지, 일상적 주택손질, 특별 주택손질, 정원손질, 세탁, 다림질, 특별 의류손질, 신체적 가족 돌보기,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 장보기, 관리, 기록의 總14個 活動을 家事勞動의 內容으로 포함시켰으며, 背景變因으로는 年齡, 教育水準, 家政婦 有無, 主婦의 職業 有無, 家族 形態, 子女數, 家庭의 月所得 등 7種類를 選定하였다.

本研究에서 糾明하고자 하는 구체적 研究內容

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都市主婦가 家事勞動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感情은 어느 程度인가?
2.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感情은 背景變因에 따라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II. 研究方法

1. 調査道具

調査道具로는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測定을 위하여 Walker와 Woods가 作成한 것으로서 ‘매우 싫어한다’(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6점)까지 6개의 應答範疇를 갖는 6點序列尺度(6-point ordinal scale)로 된 質問紙를 利用하였다.

本研究에 使用된 質問紙는 背景變因을 알기 위한 7問項과 家事勞動內容別 態度를 묻는 14問項으로 總 21問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2. 資料蒐集 및 分析

調査對象은 春川市 主婦로서 蒐集의 便宜를 고려하여 春川市 居住 江原大學校 家政教育科 學生 및 教育大學院生 15명의 居住地 주위의 10(大學院生)~17(大學生) 家口 主婦를 標集對象으로 選定하였다.

資料의 蒐集은 研究者로부터 質問紙內容 및 記入方法을 說明 들은 研究補助員들(上記한 大學生 및 大學院生들)이 1981年 7月 25日 反상회에 참가한 主婦들에게 質問紙를 배부하고 설명한 후 主婦가 직접 記入케 하여 회수하였으며, 反상회에 불참한 主婦에 대해서는 26일에 個別的으로 家庭을 방문하여 전달과 같은 方法으로 調査하였다.

質問紙는 總 200部 配布 하였으며, 應答이 미비한 26部를 제외한 174部를 本研究資料로 使用하였다. 資料의 分析方法으로는 頻度分布, 百分率, F-檢證, t-檢證을 적용하였으며, 計算은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 SPSS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本研究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은 <表 1>과 같다.

<表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背景變因	集 團	頻 度	百分率
年 齡	20~29세	35	20.1
	30~39세	45	25.9
	40~49세	59	33.9
	50세 이상	35	20.1
教育水準	국민학교 이하	34	19.5
	중·고등학교	114	65.5
	대학 이상	26	14.9
家政婦 有 無	가 정 부	14	8.0
	과 출 부 무	8	4.6
職業 有 無	유 무	152	87.4
	유 무	36	20.7
家族形態	확대 가족	138	79.3
	핵 가족	53	30.5
子 女 數	0명	11	6.3
	1명	26	14.9
	2명	47	27.0
	3명	48	27.6
	4명 이상	42	24.1
家庭의 月所得	20만원 미만	34	19.5
	20~30만원	51	29.3
	30~40만원	48	27.6
	40만원 이상	41	23.6
計		174	100.0

年齡別로는 40대가 34%로서 가장 많으나 各世代가 모두 20%以上으로 비교적 고른 分布를 보이고, 教育水準別로는 3분의 2가 中·高等學校卒業의 學力을 갖고 있다.

약 9할의 主婦들이 家政婦 없이 家事勞動을 직접 하고 있으며, 약 2할의 主婦들이 職業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家族形態別로 보면 核家族이 약 7할, 擴大家族이 약 3할로 나타났으며, 無子女 主婦가 6%, 1명의 子女를 가진 主婦가 15%이고, 2명, 3명, 4명 이상인 각각 2할을 넘고 있다.

家庭의 月所得別로는 반이상인 20~4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研究結果 및 解釋

1. 家事勞動에 대한 態도의 全般的 傾向

主婦가 느끼는 家事勞動에 대한 態도의 全般的

傾向을 살펴보기 위하여 14個 家事勞動內容別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程度를 나타내는 態度測定에 대한 應答比率와 算術平均을 算出하였다.

<表 2>에서와 같이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點數는 平均 3.67로 나타났으며, 家事勞動의 內容에 따라 最下 2.79에서 最高 4.69까지 多樣하게 分布하고 있다.

主婦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보기(4.69), 정원손질(4.38), 관리(4.19),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4.08)의 순이며, 이상 4가지 일이 平均點數 4.0이상을 보이고, 특히 싫어하는 일은 설거지(2.79), 다림질(2.93)로서 平均點數가 3.0에 못미치고 있다.

全般的으로 볼 때 態度點數의 算術平均이 3.67로서 中間인 3.5를 약간 상회하고, 14個活動中 9個活動에서 최빈치가 좋아한다에 있고, 否定的인 反應과 肯定的인 反應으로 兩分했을 때 否定: 肯定이 약 4:6인 것 등으로 미루어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感情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약간 好意的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の 研究結果를, 應答한 主婦의 大部分이 家事勞動에 대해 好意的인 態度를 表示했고, 態度點數 5.0以上인 活動이 특별 음식준비,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 신체적 가족 돌보기, 식사준비 등 4個가 되고, 3.0以下의 態度點數를 받은 活動은 하나도 없는 Jarmon의 研究結果와 비교해 보면 全體的으로 態度點數가 낮고, 좋아하는 일의 종류에서도 差異가 있다.¹³⁾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를 分析한 先行研究들이 대개 좋아하는 일로 식사와 관련된 일, 자녀양육, 가족돌보기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³¹⁾ 장보기, 정원손질, 관리 등에 높은 點數가 나온 結果는 앞으로의 研究에서 재검토되고, 好意的인 態度를 갖게 하는 要因도 세밀히 分析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일에 있어서는 설거지, 다림질, 세탁 등 先行研究와 一致하고 있는데,³¹⁾ 이러한 일들은 단조롭고 시간소비가적이라는 이유로 싫어한다고 지적되었다.³²⁾

〈表 2〉 Attitudes of Ho usewives toward Household Work

家事勞動內容	應答者數*	態 度 測 度 (%)						算術平均
		(1) 매우 싫다	(2) 싫 다	(3) 싫은 편이다	(4) 좋은 편이다	(5) 좋 다	(6) 매우 좋다	
(1) 일상적 식사준비	173	2.3	8.7	26.0	49.7	11.6	1.7	3.65
(2) 특별 음식준비	173	5.8	9.8	19.7	41.6	21.4	1.7	3.68
(3) 설 것 이	174	12.1	24.1	41.4	17.8	4.0	0.6	2.79
(4) 일상적 주택손질	172	5.8	17.4	39.0	25.6	11.6	0.6	3.22
(5) 특별 주택손질	171	2.9	8.2	26.9	46.2	14.0	1.8	3.66
(6) 정원손질	110	0	1.8	13.6	40.9	31.8	11.8	4.38
(7) 세 탁	173	8.1	19.1	30.1	30.1	11.0	1.7	3.22
(8) 다 리 질	172	7.0	27.3	40.1	18.6	5.2	1.7	2.93
(9) 특별 의류손질	168	1.2	11.3	25.6	37.5	20.8	3.6	3.76
(10) 신체적 가족 돌보기	163	0.6	15.3	27.0	38.0	16.0	3.1	3.63
(11)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	163	1.2	3.1	18.4	47.2	23.9	6.1	4.08
(12) 장 보 기	174	0	1.7	5.2	31.6	45.4	16.1	4.69
(13) 관 리	166	0.6	5.4	16.9	37.3	30.7	9.0	4.19
(14) 기 록	169	0.6	7.1	21.9	42.6	23.1	4.7	3.95
計	174	3.4	11.5	25.1	36.1	19.3	4.6	3.67

* 해당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는 무응답.

2. 背景變因에 따른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

各變因에 따른 家事勞動에 대한 態도의 差異를 살피기 위하여 變因集團別 平均態度點數에 대하여 t-檢證 및 F-檢證에 依해 $p < .05$ 水準에서 有意한 差로 보았을 때, 主婦의 年齡, 教育水準, 家族形態가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變因別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點數는 〈表 3〉과 같다.

主婦의 年齡은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年齡別로 $p < .001$ 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인다. 30代 主婦가 家事勞動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이 20代로서 근소한 點數의 감소를 나타내고, 40代, 50代以上 順으로 態度點數가 낮아지며, 특히 50代以上의 主婦는 家事勞動을 싫어하는 편에 속한다(3.39).

이러한 年齡別 態도의 差異는 家庭生活週기에 따른 家事勞動의 種類와 量, 家族과의 關係, 結婚 滿足度 및 中年期以後의 身體的·精神的 變化 등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主婦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家事勞動에 대하여

보다 好意的인 態度를 表現하였고, 教育水準別로 $p < .05$ 水準의 有意한 差가 發見되었는데, 이는 社會的 地位가 높을수록 主婦의 地位에는 不滿足하는 경향이 있으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더욱 好意的이라는 Van Bortel 등의 研究와 一致한다.²⁹⁾

大部分의 活動에서 家政婦가 있는 家庭의 主婦가 家事勞動에 대하여 더욱 好意的인 點數를 보였으나, 家政婦 有無에 따라 意義있는 水準의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職業 有無에 따른 態도의 差에 있어서도 有職主婦가 無職主婦보다 全體的으로 好意的인 態度를 보였으나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는 發見되지 않았는데, 이는 就業과 家事勞動을 싫어하는 것 사이에는 關係가 있다거나 또는 없다고 結論짓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한 先行研究의 一面을 나타낸다고 하겠다.³⁰⁾ 또한 本研究對象에서 就業主婦의 47%가 大卒의 學力을 가졌고, 大卒主婦의 64%가 職業을 가지고 있으므로 職業有無別 態度點數의 差에는 教育水準에 따른 影響도 상당히 作用하였음을 고려하여야겠다.

夫婦와 子女 以外에 父母, 兄弟와의 同居, 分家 여부를 물어 擴大家族과 核家族으로 家族의 形態를 區分하여 調査한 結果, 家族形態에 따라 主婦

〈表 3〉 Attitudes of Housewives toward Household work accords to the Variables

背景變因	集團 類度(%)	家事勞動內容別 平均 點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計	
年 齡	29세 미만	35(20.1)	3.69	3.97	2.91	3.26	3.69	4.36	3.29	2.89	3.83	4.11	4.49	4.89	4.40	3.97	3.82
	30~39세	45(25.9)	3.69	3.82	2.96	3.44	3.76	4.56	3.48	3.13	3.98	3.78	4.16	1.89	4.36	3.87	3.83
	40~49세	59(33.9)	3.78	3.57	2.86	3.12	3.20	3.02	3.64	3.31	3.87	3.31	3.87	4.61	4.14	4.07	3.64
	50세 이상	35(20.1)	3.32	3.40	3.03	3.32	3.32	4.25	2.86	2.56	3.62	3.39	3.87	1.37	3.85	3.82	3.39
	計 및 F값	174(100.0)	1.82	1.91	2.91	1.21	1.69	0.66	1.90	2.17	1.13	5.45	3.80	3.27	2.11	0.58	5.80
教育水準	국졸이하	34(19.5)	3.35	3.38	3.18	3.62	4.20	2.91	2.79	3.62	3.28	3.77	4.41	4.03	3.61	3.45	
	중·고졸	114(65.5)	3.76	3.75	2.87	3.21	3.71	4.43	3.31	3.00	3.78	3.68	4.04	4.73	4.09	4.04	3.71
	대졸이상	26(14.9)	3.54	3.77	3.00	3.27	3.46	4.36	3.23	2.81	3.88	3.85	4.62	4.88	4.81	4.00	3.82
	計 및 F값	174(99.9)	2.73	1.47	3.58	0.06	.72	0.38	1.52	0.71	0.46	2.50	6.23	2.58	5.77	2.49	4.27
	가정부 과출부	14(8.0)	4.00	3.93	2.79	3.23	3.92	4.90	3.43	3.15	4.17	3.62	4.08	5.07	4.43	3.93	3.90
家政婦 有 無	8(4.6)	3.63	3.50	3.13	3.63	3.50	4.25	3.25	3.00	3.38	3.43	4.29	4.38	4.29	3.71	3.63	
	152(87.4)	3.26	3.67	2.78	3.19	3.64	4.33	3.20	2.91	3.75	3.64	4.07	4.67	4.17	3.96	3.65	
	計 및 F값	194(100.0)	1.08	0.44	0.43	0.62	0.60	1.75	0.25	0.35	1.43	0.13	0.17	1.95	0.44	0.21	1.37
	유 무	36(20.7)	3.83	3.86	2.89	3.26	3.74	4.39	3.25	2.94	4.03	3.40	4.23	4.86	4.58	3.94	3.80
	138(79.3)	3.60	3.64	2.77	3.20	3.63	4.38	3.21	2.93	3.70	3.69	4.04	4.64	4.08	3.95	3.64	
職業有無	計 t 및	174(100.0)	1.53	1.13	0.68	0.25	0.64	0.08	0.20	0.09	1.81	-1.63	1.01	1.52	2.54	-0.03	1.7
	농 거	53(30.5)	3.87	3.92	3.08	3.26	3.88	4.31	3.42	3.09	3.73	3.88	4.18	4.85	4.31	3.92	3.82
	가 가	121(69.5)	3.55	3.58	2.27	3.19	3.55	4.41	3.13	2.86	3.78	3.52	4.04	4.62	4.14	3.96	3.61
	計 및 t값	174(100.0)	2.14	1.86	2.24	0.38	2.03	-0.54	1.45	1.30	-0.30	1.92	0.88	1.72	0.99	-0.21	2.57
	무	11(6.3)	3.45	3.82	3.18	3.36	3.55	4.33	4.09	2.91	3.20	3.36	4.73	5.00	4.73	3.55	3.71
子女數	1명	26(14.9)	3.62	3.92	2.81	3.27	4.39	3.35	2.62	3.92	4.54	4.81	4.24	4.04	3.79		
	2명	47(27.0)	3.60	3.62	2.89	3.26	3.53	4.45	3.30	3.98	4.00	3.49	3.91	4.68	4.12	3.93	3.65
	3명	48(27.6)	3.67	3.63	2.67	3.21	3.68	4.33	3.21	3.04	3.73	3.37	3.84	4.67	4.04	3.79	3.64
	4명이상	42(24.1)	3.76	3.63	2.71	3.10	3.89	0.35	3.10	2.95	3.55	3.61	4.08	4.57	4.28	4.20	3.66
	計 및 F값	174(99.0)	0.30	0.41	0.73	0.21	0.82	0.0	0.28	0.74	1.91	5.86	4.03	0.68	1.11	1.48	0.40
家庭의 月所得	20만원 미만	34(19.5)	3.44	3.59	2.76	3.35	3.62	4.30	3.32	2.79	3.39	3.38	4.03	4.50	4.12	3.91	3.60
	20~30만원	51(29.3)	3.74	3.69	2.92	3.24	3.78	4.35	3.26	3.12	3.67	3.67	3.88	4.57	4.08	3.86	3.66
	30~40만원	48(27.6)	3.75	3.72	2.77	3.31	3.67	4.62	3.35	2.90	3.96	3.60	4.20	4.85	4.16	3.89	3.73
	40만원 이상	41(23.6)	3.59	3.71	2.68	2.95	3.51	4.20	2.95	2.85	3.95	3.82	4.23	4.80	4.44	4.15	3.69
	計 및 F값	174(100.0)	0.96	0.10	0.43	1.16	0.56	1.19	1.18	0.83	2.49	1.07	1.36	1.72	0.97	0.75	0.44
應 答 者 數		173	173	174	172	171	110	173	172	168	163	163	174	166	169	174	

***p<.001 **p<.01 *p<.05

의 家事勞動에 대한 差異가 意義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정원손질, 특별 의류손질, 기록에서 核家族 主婦가 근소한 差異로 더 好意的인 것을 제외하면 그의 모든 活動에서 擴大家族의 主婦가 더 好意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父母世代와 同居하므로 家事勞動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知識을 習得할 機會가 더 많았고, 이러한 認知的 資源이 情緒의 要素인 態度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子女數에 따라서는 意義있는 差가 發見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가족 돌보기($p < .001$),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p < .01$)에 있어서는 子女數別로 有意한 水準의 差가 나타났는데, 신체적 가족 돌보기에 있어서는 子女가 1명일 때,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에 있어서는 子女가 없을 때 가장 높은 態度點數를 보였고, 子女數에 따라 態度點數의 高低에 일정한 方向은 나타나지 않았다.

家庭의 月所得別로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有意한 差가 發見되지는 않았으나 40만원이상의 集團을 제외하고는 所得이 높아질수록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가 더욱 好意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所得自體가 態度에 意義있는 影響을 주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經濟的 安定이 家事勞動에 대하여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全般的인 態度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感情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약간 好意的이다.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는 勞動의 內容에 따라 差異를 보이는데 장보기, 정원손질 등을 좋아하고 설거지, 다림질 등을 싫어한다,

主婦의 年齡, 教育水準, 家族形態가 都市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態度에 有意한 水準의 差異를 나타내었고, 年齡別로는 20代, 30代의 主婦가,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核家族보다 擴大家族의 主婦가 家事勞動을 더욱 좋아하는 傾向이 있다. 家政婦 및 職業의 有無, 子女數, 家庭의 月所得에 따라서는 態度의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다.

本研究에서는 調査對象의 標集方法 및 調査道具의 作成 등에 不足한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 家事勞動에 대한 情緒의 要素에 관하여 더 많은 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基礎資料를 提示했다는 점에서 研究의 意義를 찾으며, 앞으로 보다 깊은 研究를 기대하는 바이다.

引用文獻

1. Walker, Karthyn E., and Margaret E. Woods,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1.
2. Deacon, Ruth E., Francille 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Allyn Bacon, Inc., 1981, 149.
3. Steidle, Rose E., and Esther Crew Bratton, *Work in the Hom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8, 15, 27, 24.
4. Andrews, Frank M., and Stephen B. With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1976, 50.
5. Lovingood, Rebecca P., and Francille M. Firebaugh, *Household Task Performance Roles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7, No.1(September 1978), 20-33. Nickols, Sharon Y., and Edward J. Metzzen,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7, No.2(November 1978), 85-97. Deacon, Ruth E., and Francille M. Firebaugh, *Ibid.*, 142-143. Stafford, Rebecca, Elaine Backman, and Pamela Dibona, *The Division of Labor among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February 1977), 54.
6. 李仁喜, 家庭管理學, 修學社, 1976, 211.
7. Walker, Kathryn E., and Margaret E. Woods, *Ibid.*, xx.

8. Kothandapani, Virupaksha, Validation of Feeling, Belief, and Intention to Act as Three Components of Attitude and Their Contribution to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9(September 1971), 321.
9. 李美淑, 主婦의 自我實現性과 役割態度와의 關係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8, 14-15 참조.
10. Glazer-Malbin, Nona, Housework, *Sign: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1, No.4(1976), 914.
11. Nickell, Paulena, Ann Smith Rice, and Suzanne P.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6, 241.
12. Deacon, Ruth E., and Francille M. Firebaugh, *Ibid.*, 142.
13. Walker, Kathryn E., and Margaret E. Woods, *Ibid.*, 38, 46.
14. 山本キワ, 新版 家庭經營, 東京: 同文書院, 1971, 74-75. (朴仁德, 韓國女子大學生의 家事能力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1-4, 1973, 402, 재인용)
15. 李仁喜, 前掲書, 215.
16. Gross, Irma H., Elizabeth W. Crandall, and Marjorie 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0, 278-280.
17. 尹福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1975, 70-76.
18. 南明姬, 主婦의 時間管理 實態調查, 강릉교육 대학 論文集, 5권, 1973, 282.
19. 李貞玕, 家族成員間 家事分擔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0-2, 1972, 76. 徐英淑, 趙必嬌, 家族成員間 家事勞動 分擔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4, 1976, 116.
20. 張明郁, 우리나라 主婦의 家庭管理에 대한 價値意識에 關한 研究, 家庭管理學研究(張明郁 教授 回甲紀念論文集), 木蓮會, 1976, 120, 132.
21. 張明郁, 우리나라 主婦의 家庭管理行動에 關한 調查研究, 家庭管理學研究(張明郁 教授 回甲紀念論文集), 木蓮會, 1976, 89.
22. 高道任, 都市主婦의 家庭管理에 대한 態度研究, 聖心女子大學 論文集, 第9輯, 1978, 193.
23. 社智均, 서울시 新婚主婦의 家庭管理上의 문제점에 대한 調查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16.
24. 朴仁德, 韓國 女子大學生의 家事能力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1-4, 1973, 406.
25. 丁堯燮, 李朝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位置, 亞細亞女性研究, Vol. III, 1964, 40.
26. 崔信德, 都市主婦의 적응과정에 關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第21輯, 1973, 89.
27. 文淑才, 都市主婦의 家庭管理行動에 대한 意識과 實態調查, 1979年度 文敎部 學術研究費에 의한 論文(미간행), 13.
28. Steidle, Rose E., and Ester C. Bratton, *Ibid.*, 23-26. Walker, Kathryn E., Homemaking Still Tasks Time, *Journal of Home Economics* 61(1969), 621-624.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Roundation, 1976, 306. Walker, Kathryn E., and Margaret E. Woods, *Ibid.*, 46. 張明郁, 新訂 家庭管理學, 敎文社, 1981, 84.
29. Van Bortel, Dorothy Greey, and Irma H. Gross, A Comparison of Home Management in Two Socio-economic Groups, Technical Bulletin 240, East Lansing: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1954. (Deacon, Ruth E., and Frandille M. Firebaugh,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312, 재인용)
30. Lopata, Helen Z., Occupation: Housew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205.
31. Maloch, Francille, Characteristics of Most

- and Least Liked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June 1963), 414.
- Steidle, Rose E., and Ester Crew Bratton, *Ibid.*, 25-27. Walker, Kathryn E., and Margaret E. Woods, *Ibid.*, 46.
32. Lopata, Helen Z., *Ibid.*, 205. Ronald, Patricia Y., Mary E. Singer, and Francille M. Firebaugh, *Ibid.*, 178-179. Walker, Kathryn E., and Margaret E. Woods, *Ibid.*, 46.
- Steidle, Rose E., Affective Dimension of High and Low Cognitive Homemaking Task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December 1975), 121-137. Glaza-Malbin Nona, *Ibid.*, 914.
33. Steidle Rose E., *Ibid.*, 136.